

## 젠더 위기극복 측면에서 여성부장관의 정책 변화 추이 분석

-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의 차이를 중심으로 -

The Analysis of the Tendency from the Minister of the Gender Equality and Family in Terms of  
the Overcome of Gender Crisis

- Focused on the Difference between Rho Moo-Hyoun and Lee Myung-Bak Administration -

Hye Won Ahn

38Wolgok-Gil Gangnae-Myeon, Heungdeok-Gu, Cheongju-Si, Chungcheongbuk-Do

### Abstract

This study analyzed trends in policies on women observed in the women's policy trends of minister of the gender equality and family in order to overcome the gender crisis through semantic network analysis. Especially it is focused on the Lee Myung-Bak and Roh Moo-Hyoun administration. So it is founded out the change of the women's policies and it'll become academic foundations. First, the Keyword 'women' had high centrality in the every minister except minister Kim Keum-Lae. In case of Roh Moo-Hyoun administration, keywords 'women', 'problem', 'Irregular workers', 'international', 'human power', 'underprivileged' had high centrality in the inaugural speech of minister Ji Eun-Hee. Kewords 'new', 'childcare', 'society', 'nation', 'childcare paradigm', 'improvement of women's status' had high centrality in the inaugural speech of minister Jang Ha-Jin. In the case of Lee Myung-Bak administration, keywords 'policy', 'promoting', 'government', 'political problem', 'new administration', 'work' had high centrality in the inaugural speech of minister Byoun Do-Yun. And Kewords 'work', 'life', 'home', 'economy', 'achievement' had high centrality in the inaugural speech of minister Baek Hee-young. Keyword 'family' had higher centrality than other minister's speech in the inaugural speech of minister Kim Geum-Lae and keywords 'policy', 'gender', 'women', 'capability' had

---

\* Tel. +82-51-510-1291. E-mail. heywon8151@daum.net

Submission & Publication Process

Received: Dec. 7, 2014 / Revised: Dec. 17, 2014 / Accepted: Jan. 19, 2015

high centrality.

**Key words:** the minister of the gender equality and family, women's policy

### 국문초록

이 연구는 젠더 위기 극복측면에서 우리나라 여성부장관의 여성정책의 변화 추이를 언어네트워크 방법론을 통해 분석하였다. 특히, 노무현 정부시기와 이명박 정부시기의 여성부 장관의 여성정책 변화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여성정책이 어떠한 변화를 겪어 왔는지를 도출해 보고자하며, 이는 우리나라 여성정책의 학문적 정체성에 기초자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우선 김금래 장관을 제외한 분석한 모든 장관의 경우 “여성”의 중심성이 가장 높았다. 노무현 정권의 경우, 지은희 장관 취임사는 정책 경향성 내지 정책의 패턴을 살펴보기 위하여 언어네트워크 분석을 실시한 결과 “여성”키워드의 중심성 값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문제”, “비정규직”, “국제”, “인권”, “소외계층” 등의 키워드 중심성 값이 높았다. 장하진 장관 취임사는 “새로운”, “보육”, “우리사회”, “국가”, “보육패러다임”, “여성지위향상” 등의 키워드가 중심성 값이 높았다. 이명박 정권의 경우, 변도윤 장관 취임사는 “정책”, “추진”, “정부”, “정책과제”, “새정부”, “일” 등의 키워드가 높았다. 백희영 장관 취임사는 “일”, “생활”, “가정”, “경제”, “성과” 등의 키워드가 중심성 값이 높았다. 마지막으로 김금래 장관의 취임사는 “가족”키워드의 중심성 값이 가장 높게 나타나 다른 장관들이 “여성”키워드의 중심성 값이 가장 높다는 것에 비하여 특이했다. 다음으로, “정책”, “성”, “여성”, “역량” 등의 키워드의 중심성 값이 높았다.

**주제어:** 여성부장관, 여성정책

## 1. 도입

지난 세기까지 세계무대는 남성들의 주도하에 발전해 왔다. 하지만 지식기반사회로 불리는 21세기가 도래하면서 노동력의 성별기반은 무의미하며, 여성인력의 활용 없이는 국가경쟁력이 저하될 것이라는 데 대한 사회적인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여성의 교육수준이 높아지고 사회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여성의 역량에 대한 재인식이 일어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저출산과 고령화라는 우리 사회의 인구학적 변화가 초래할 노동력 부족 현상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으로서도 여성인력은 매우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다. 여성들의 정치, 경제, 사회적 권익신장에 대한 욕구가 높아지면서 사회 전반에 걸쳐 남녀 평등에 대한 관심과 더불어 여성정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김현숙, 2009).

우리나라 역시 1948년 제정헌법<sup>1)</sup>에서 성차별금지를 명시하고 있지만, 이는 현실과 동떨어진 소극적인 문구에 불과했다. 1980년대에 여성정책담당부서 설치 등 여성정책에도 변화가 있는 듯 보였으나 질적인 변화는 요원하였다. 당시 여성의 정치나 사회 참여 등에 있어서는 여전히 여성을 국가 정책의 수단으로 활용한 면이 강했다(백영주·김수지, 2005). 이후 본격적인 여성정책 추진기구의 설치인 1988년 정부(제2)장관실에서 시작했다. 이후 1998년 대통령직속 여성특별위원회를 거쳐 2001년 여

1) 헌법 제11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 차별받지 아니한다.

성부의 설립으로 본격적·전문적인 여성정책을 수립·추진하게 되었다. 이와 더불어 성차별 금지와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다양한 법률과 정책들이 도입·시행되었다. 그 결과 오늘날 여성정책은 선진국에 비추어 손색없는 기구와 법제들을 갖게 되었고, 이제는 국가 정책의 한 영역으로서 확고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김영옥·마경희, 2004).

그리고 정부는 1984년 비준한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에 근거하여 가족법관련규정 등 협약의 유보조항에 대한 철회와 남녀평등실현에 대한 적극적인 조치를 수행했다. 1987년에는 헌법의 개정을 통해 양성평등과 모성보호에 대한 규정이 신설되었으며 1989년에는 호주상속이 호주승계제로 바뀌고 친족의 범위가 남녀평등하게 조정되었으며, 공무원 임용시 남녀의 차별을 규제하는 조항을 폐지하였다. 1994년에는 ‘성폭력특별법’이 제정되었으며, 1995년에는 모든 분야에서 남녀평등을 촉진하고 여성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여성정책의 근거법으로 ‘여성발전기본법’이 제정되었고, 1999년에는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2000년에는 비례대표의원 후보자의 3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정당법’이 개정되었다(김선옥, 2000).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sup>2)</sup>이 매년 발표하는 2013년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148개국 중 25위(국가 경쟁력보고서,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 2013-2014)로 높은 순위를 차지한 반면, 2014년판 ‘남녀격차 보고’에서 조사대상 142개국 중 한국은 117위를 차지하며 심지어 지난해 111위에서 6계단 더 내려갔다(경향신문, 2014. 10. 28). 즉, 우리나라는 국가경쟁력 차원에서는 상위수준(25위)이지만, 남녀평등 차원에서는 하위수준(117위)에 머무는 불균형 상황에 놓여 있다. 여성 인적자원이 고도로 개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 내에서 제대로 평가 받거나 활용되고 있지 못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따라서 이 연구는 젠더 위기 극복측면에서 우리나라 여성부장관의 여성정책의 변화 추이를 분석하고자 한다. 특히, 노무현 정부시기와 이명박 정부시기의 여성부 장관의 여성정책 변화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여성정책이 어떠한 변화를 겪어 왔는지를 도출해 보고자하며, 이는 우리나라 여성정책의 학문적 정체성에 기초자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 II. 이론적 논의

### 1. 우리나라 여성정책의 변천사

2)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 WEF)세계 경제 포럼(World Economic Forum, WEF)은 1970년 유럽의 경제인들이 서로 우의를 다지기 위해 만든 비영리재단인데, 스위스 다보스에서 개최되는 이 재단의 연차 총회인 다보스 포럼으로 더 잘 알려져 있다. 최근 들어 세계적인 저명인사들이 대거 다보스 포럼에 참석하고, 경제 외에 정치·사회 문제에 대한 처방과 대안을 제시하는 자리로 바뀌면서 개별 국가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국제 회의의 성격이 강해졌다. 다보스 포럼은 1982년부터 열리기 시작했으며, 1주일간 주요 인사의 연설과 분야별 토론, 사교 모임 등 행사가 이어진다(브리태니커 사전, 2014).

여성문제의 정책화가 이루어진 국내의 여건변화를 살펴보면 80년대 이후 성장한 각계각층 여성단체들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여성의 문제가 사회과제로 등장하게 되었다. 이들은 적극적으로 여성관련 의제를 제공했고, 여론을 주도했으며, 활발하게 정책결정 과정에 개입했다. 여성평우회(1983년)와 여성의전화(1983년) 그리고 여성단체들을 회원으로 하는 우산조직인 한국여성단체연합(1987)의 결성은 이후 우리나라 여성정책의 성격변화에 중요한 계기를 제공하였다(김현숙, 2009).

1983년 국무총리 산하 여성정책심의위원회에서 출발한 우리나라의 여성정책 추진 기구는 1988년 정부장관(제2)실에서 전체 정원 20명으로 시작되었다. 이후 1990년 국무총리훈령 제243호에 따라 사회·문화에 관한 업무를 대상으로 하되 특히 여성분야에 중점을 두어 소관업무를 지정하였고 1993년 여성발전기본법 제정에 따라 인원을 증원하였다. 1998년 대통령직속 여성특별위원회가 신설되어 여성정책을 기획·종합하고, 1999년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른 인원을 증원하였다.

본격적인 여성부의 출범은 2001년이다. 2001년 1월 3국 11과, 정원 102명의 여성부가 출범하면서 여성정책의 기획·종합, 남녀차별의 금지·규제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다. 계속하여 여성부 내 조직을 개편 여성인력개발 및 여성정보화 사업 강화, 보건복지부로부터 영유아 보육업무 이관, 정책홍보관리실을 설치하여 정책홍보 및 재정기획 기능을 강화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2005년 여성부는 여성가족부로 새롭게 출범하면서 여성, 가족 및 영유아 보육 업무를 담당하며 인원도 대폭 증원하였고, 2007년 여성가족부 내 가족통합팀을 설치하여 결혼이민자 가족 지원 업무를 강화하였다. 2008년 여성가족부는 다시 여성부로 출범, 여성정책의 기획·종합, 여성의 권익증진 등 지위 향상, 경력단절 여성지원사업 강화 등을 담당하였다.

마지막으로 2010년 여성부는 다시 여성가족부로 출범하였고 여성, 가족, 청소년 정책 및 건강 가정 사업을 위한 아동업무를 담당하면서 조직의 규모를 확장·개편하였고, 현 시대·사회적인 추세에 따라 2012년 다문화가족지원과를 신설하고 인원을 증원하여 현재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여성가족부 홈페이지, <http://www.mogef.go.kr>).

이처럼 우리나라는 1988년 이후 여성과 관련된 부처를 만들어 여성정책을 본격적으로 담당하게 되었고, 특히 1998년부터 5년 단위로 여성정책기본계획을 수립 오늘날 4차까지 진행되어오고 있다. 구체적으로 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제1차 여성정책기본계획은 1998년부터 2002년까지 건강한 가정의 구현과 국가 및 사회발전에 남녀가 공동으로 참여하고 책임을 분담하는 사회시스템 구축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수립되었다. 기본전략은 법·제도 및 관행의 개혁과 여성의 대표성 제고, 여성고용의 촉진 및 안정을 위한 지원 강화, 여성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교육체제 확립, 다양한 여성·가정 복지서비스의 확충, 여성의 문화·사회활동 활성화를 위한 기반구축, 국제협력과 통일에의 여성역할 증대이다(여성부, 1998).

제2차 여성정책기본계획은 2003년부터 2007년 까지 정부의 정책에 양성 평등관점을 통합하기 위한 정책 및 양성 평등한 가족정책의 기반조성 등 새로운 정책환경에 부응한 정책을 선정하여 추진하고 모성보호 강화, 보육서비스 확대, 평등문화의 확산 지속 추진 등 제1차 계획과 연계하여 추진하였다.

실질적 남녀평등사회의 실현을 비전으로 삼아 남녀의 조화로운 동반자 관계 형성, 지식기반 사회 여성의 경쟁력 강화, 사회 각 분야 여성의 대표성 제고, 여성의 복지증진 및 인권보호 강화를 목표 삼았다. 제2차 기본계획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추진전략으로 ‘성 주류화(Gender-Mainstreaming)’와 ‘협력 체계 구축(Partnership)’을 제시했다. 제2차 기본계획의 정책과제 추진은 성 주류화 전략을 통해서 실질적인 남녀평등사회 실현에 기여할 수 있으며, 여성대상만의 정책을 넘어 남성을 변화시키고 남녀의 사회적 관계를 변화시키는 정책을 포함함으로써 성 주류화 전략의 철학과 기초가 매우 중요하게 여겼다. 또한, 제2차 기본계획은 계획의 성격상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여성단체 등의 유기적인 협조를 바탕으로 추진될 때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으므로 ‘협력체계 구축’ 역시 매우 중요한 추진전략의 하나였다(여성부, 2003).

제3차 여성정책기본계획은 2008년부터 2012년까지 비전으로 성숙한 성평등 사회를 제시하며 여성의 역량강화, 다양성과 차이 존중을 목표로 추진되었다. 지난 10여 년간의 여성정책 성과와 새로운 정책 환경의 요구를 반영하여 지속가능한 성 평등 사회를 위한 보다 적극적이고 다각적인 여성정책의 방향과 위상을 정립하고, 정부의 국정철학에 맞는 새로운 여성정책의 틀을 구축·보완하였다. 이에 대한 전략으로 여성인력 활용, 여성의 권익보호, 성평등정책 추진 기반 강화 등을 제시하였다(여성부, 2008).

제4차 여성정책기본계획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함께 참여하고 성장하는 성평등사회를 비전으로, 성별격차 해소와 동등한 참여, 촘촘한 안전망의 구축, 일과 가족의 조화를 목표로 수립·추진되고 있다. 이에 대한 주요 정책과제는 여성의 경제적 역량강화, 돌봄 지원과 일·가족 양립기반 구축, 여성에 대한 폭력 근절과 인권보장, 여성·가족의 복지 및 건강권 증진, 여성의 대표성 제고 및 참여 확대, 평등의식과 문화의 확산, 성평등정책 추진역량 및 책무성 강화를 주요 정책과제로 삼았다(여성부, 2013).

## 2. 역대 여성부 장관의 정책 변화

노무현 정권의 초대 장관 지은희 장관(2003. 2. 27-2005. 1. 4)은 취임사에서 대표적 여성문제로서 비정규직과 영유아 육성 문제, 성매매, 인권문제를 지적하며 이를 국가적 과제로서 전 부서가 함께 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강조하면서 소외계층 여성들을 위해 현장을 뒤면서 파악하고 기획하는 정책을 펴고 싶은 바람을 표출했다.

다음으로 노무현 정권의 장하진 장관(2005. 1. 5-2008. 2. 29)은 여성부가 여성가족부로 바뀌면서 여성부에 이은 여성가족부의 장관까지도 역임했다. 장하진 장관의 취임사에서 가장 강조한 부분은 가족법의 개정, 즉, 호주제의 폐지였다. 또한 여성정책에 대한 총괄·조정 강화를 통해 모든 국가정책에 여성정책 주류화를 지속적으로 실현해나갈 것을 약속하며 다각적인 여성인적자원개발을 통해 고학력 여성은 물론, 주부를 비롯한 다양한 계층의 여성들이 경제활동을 확대해 나갈 것을 강조했다. 그리고 성매매 문제, 보육패러다임의 실천, 여성과 남성이 함께 공존하고 발전하는 실질적인 남녀평등사회의 실

현을 제시했다.

이명박 정권의 초대 여성부 장관 변도윤 장관(2008. 3. 13-2009. 9. 29)은 함께하는 행정을 약속하며 특히 당시 세계 여성의 날 100주년이 되는 해로써 여성정책의 새로운 추진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더 많은 여성의 중요한 의사결정 과정에의 참여를 통한 양성평등의 실현을 제안하고, 가정폭력, 성폭력 근절 및 취약한 가회적 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여성의 인권보호와 권익 신장을 위한 정책과제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을 강조했다. 무엇보다 경제살리기에 대한 동참으로 여성인력이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여성 일자리를 창출하고 여성이 일하기 좋은 기업과 사회환경을 만드는 데 힘을 쓸 것, 출산과 육아로 인하여 일을 잠시 중단했던 여성들의 재취업을 위한 정책 개발을 취임사에서 밝혔다.

다음으로 이어 여성가족부의 장관이 된 백희영 장관(2009. 9. 30-2011. 9. 16)은 여성정책의 외연을 확대하여 여성정책이 진정 우리나라 여성들과 국민 모두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하며 양성평등의 실현과 그동안 추진되어 온 여성부의 정책들의 발전·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을 제안했다. 이를 위해 첫째, 생활 밀착형 여성정책의 추진, 둘째, 일과 가정의 조화와 균형을 통해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일과 가정’ 그 두 가지를 다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실질적인 정책을 개발의 추진, 셋째, 여성의 인권과 권익증진을 위해 그동안 추진해 오던 사업의 지속적 강화를 강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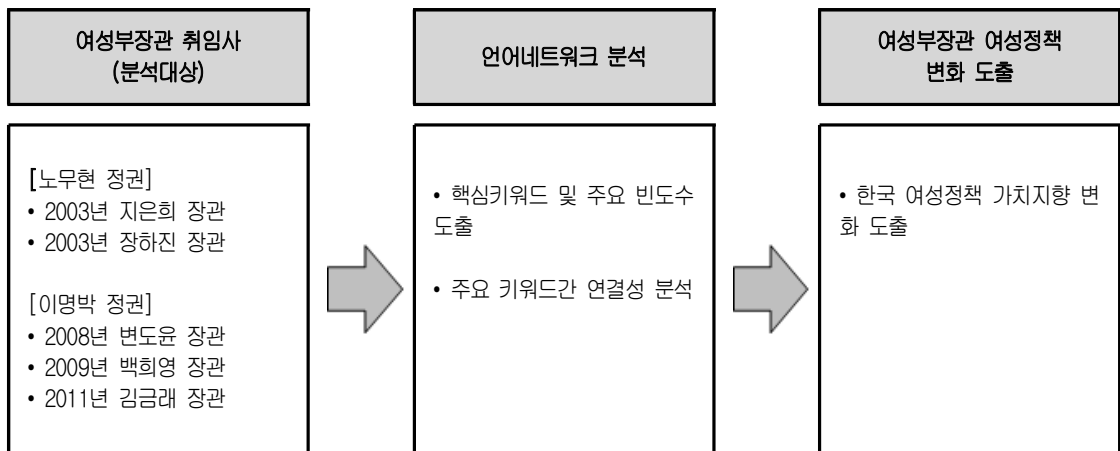
마지막으로 김금래 장관(2011. 9. 16-2013. 3. 11)은 여성 부문에서 법·제도적 차별은 많이 없어졌지만 공공부문의 여성대표성, 여성경제활동 참가율 등 여성의 지위와 관련한 지표의 열악성을 지적했다. 또한, 가족해체로 인한 가출청소년의 증가, 미혼모·다문화가족 및 탈북여성과 같은 사회취약계층 발생 등의 문제 또한 지적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첫째, 정부의 여성정책을 총괄하는 부처로서 성별영향평가와 성인지 예산제도를 내실있게 운영하며 정부 각 부처에서 시행되고 있는 여성관련 업무 조정기능을 강화하고 여성관련 업무의 적극 개발, 둘째, 청소년을 위한 정책으로 청소년 역량 개발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보급과 범정부적 협조를 통한 가출청소년에 대한 맞춤형 가정복지 지원, 셋째, 가족의 전 생애에 걸쳐 삶의 만족도를 제고를 위한 가족가치 확산과 다양한 가족에 대한 역량강화를 수요자 관점에서의 적극 추진, 마지막으로 여성과 아동이 안전한 사회를 조성해 일상에서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제안했다.

### 3. 연구분석틀

최근 들어 연구나 정책 경향을 분석하기 위한 방법론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연구주체를 중심으로 연구의 먹이사슬 관계를 밝히기 위한 노력이 시도되고 있다. 특히, 이들 연구나 정책 간의 상호관계성을 파악하기 위해 언어네트워크 측면에서의 접근이 활발해지고 있다. 이것은 네트워크 분석방법이 다양한 형태를 가진 사회 시스템 내의 관계적 구조를 파악하여, 대상들 간의 특정한 연계성 분석을 통해 대상의 사회적 행위의 특성을 파악하려는 본질적 특성 때문이다(최호택 외, 2012).

즉, 네트워크 분석은 중심성 개념을 통해 연구경향의 관계행태를 묘사적으로 서술할 수 있고, 구조적 등위성 분석을 통해 이해관계자들의 구조적 분절성과 쟁점 간 구조적 유사성과 차이를 밝힐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기존에 수행해 오던 전통적인 정책 변화 분석방법에서 벗어나 네트워크 텍스트 분석방법을 적용하여 단순한 주제별 분류 방식이 아닌 여성정책의 관계성에 초점을 둔 연구경향분석을 시도하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특정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연구하거나 여성노동환경, 이주여성 문제 등 여성정책에 대한 미시적 관점에서의 정책 분석 연구가 근본적 여성정책을 설명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전제를 갖는다. 즉, 여성정책은 근본적으로 최고정책결정자의 신념에서 출발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노무현 정권의 2003년 지은희 장관부터 2005년 장하진 장관, 이명박 정권의 2008년 변도윤 장관, 2009년 백희영 장관, 2011년 김금래 장관까지 가장 최근 두 정권의 여성부장관들의 취임사를 통해 여성정책의 패러다임을 살펴보고자 한다. 박근혜 정권의 경우 현재 진행형기기에 최근이지만 배제하였다. 이를 도식화해보면 다음과 같다.



<그림 1> 연구 분석틀

### III. 조사 설계

이 연구에서 사용한 연구방법론은 언어네트워크방법론(semantic network analysis)이다. 언어네트워크방법론은 내용분석기법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다(박한우·Leydesdorff, 2004: 1377-1388). 그동안 전통적인 내용분석방법은 학문적으로 많은 기여를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한계점을 지니고 있었다. 즉, 연구자가 임의로 만든 분석의 항목에 너무 의존하게 되고, 노동 비용도 많이 들어가며, 외적 타당성이 제한되어 연구자의 성향에 따른 영향을 많이 받게 된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등 그 한계가

있었다(박한우·Leydesdorff, 2004: 1377-1388; Rice & Danowski, 1993: 369-397). 이러한 한계점을 극복하고자 도입된 것이 언어네트워크방법론이며, 언어네트워크방법론은 분석기법으로 KrKwic(Korean Key Words In Context) 프로그램과 NetMiner 프로그램을 같이 사용하는 분석기법이다(박한우, 2006; 배연석, 2001; 사이람, 2010; 신준섭·김지수, 2011: 173-203; Lim, 2002: 328-366; 김용학, 2004).

노무현 정부 시기와 이명박 정부 시기의 여성부 장관들의 정책변화를 살펴보기 위하여, KrKwic 프로그램과 NetMiner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절차는 크게 3가지 단계로 진행되었다. 첫째, 탐색적 자료분석(Exploratory Data Analysis)으로 연구대상이 되는 연차별로 발간된 연구논문의 주제를 자료화·유형화 하였다. 둘째, 핵심단어를 파악하기 위해 분류를 시도하였다. 즉, 핵심단어의 공통성과 차별성을 파악하기 위해 KrKwic 프로그램을 통해 1차적으로 분류를 시도하였다. 셋째, KrKwic 프로그램을 통해 도출된 핵심단어에 대한 행렬매트릭스 방정식('단어×단어' 공출현 행렬)을 완성하여, 이를 바탕으로 NetMiner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핵심단어 간의 사회네트워크 연결망 내지 결합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사이람, 2010; 김용학, 2004).

#### IV. 분석결과 및 시사점

##### 1. 『여성부 장관』 취임사의 연구주제어 분석

노무현 정부 시기와 이명박 정부 시기의 여성부 장관의 취임사의 주제어 분석을 실시한 결과 다음과 같았다. 우선, 전체적으로 “여성”키워드의 빈도수가 가장 높았다. 다음, 노무현 정부 시기의 지은희 장관은 “문제”, “비정규직”, “국제” 등의 키워드가 높았고, 장하진 장관은 “보육”, “새로운”, “여성정책”, “성과” 등의 키워드 빈도가 높았다. 마지막, 이명박 정부 시기의 변동윤 장관은 “사회”, “일”, “근절”, “정책” 등의 키워드가 높았고, 백희영 장관은 “여성정책”, “사회”, “경제”, “일” 등의 키워드가 높았으며, 김금래 장관의 경우에는 “정책”, “강화”, “가족”, “성”, “국민”, “사업” 등의 키워드 빈도가 높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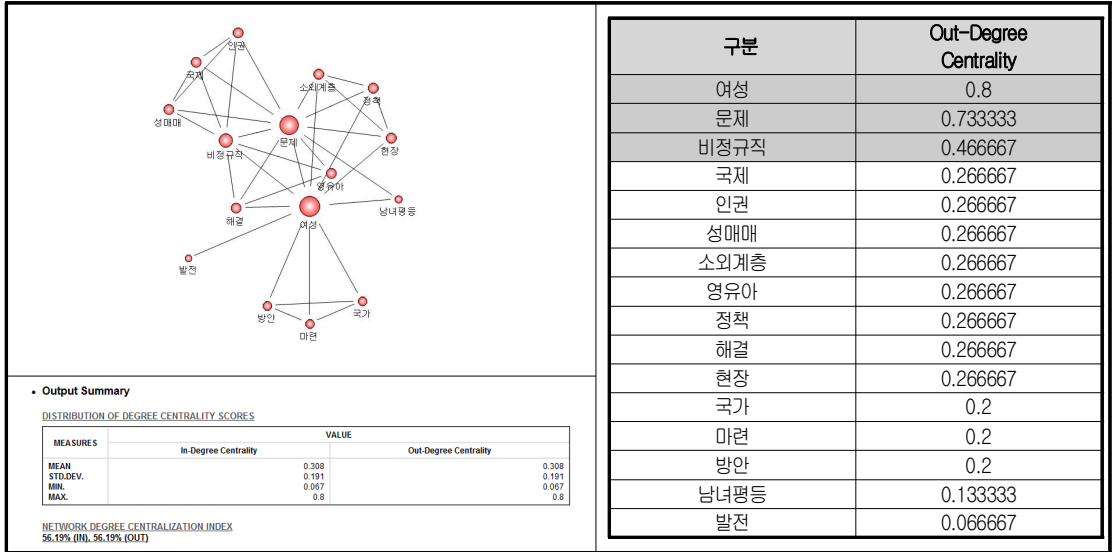
<표 1> 주제어 분석결과

노무현 정부				이명박 정부					
지은희 장관		장하진 장관		변도윤 장관		백희영 장관		김금래 장관	
빈도	키워드	빈도	키워드	빈도	키워드	빈도	키워드	빈도	키워드
7	여성	15	여성	17	여성	22	여성	27	여성
6	문제	5	보육	5	추진	9	여성정책	9	정책
2	비정규직	5	새로운	4	사회	6	사회	8	강화
1	국가	4	여성정책	4	일	5	가정	6	가족
1	국제	3	성과	3	근절	4	경제	5	성
1	남녀평등	3	도약	3	세계	4	국민	4	사회
1	마련	3	우리사회	3	정책	4	일	3	국민
1	발전	3	전환	2	경제	3	강화	3	사업
1	방안	2	결실	2	국민	3	과제	3	역량
1	인권	2	국가	2	권익	3	국정	3	정부
1	성매매	2	발전	2	새로운	3	정부	2	가족가치
1	소외계층	2	보육패러다임	2	새정부	2	경제활동	2	가출청소년
1	영유아	2	성매매	2	세계여성	2	새로운	2	맞춤형
1	정책	2	여성지위향상	2	인권	2	생활	2	미래
1	해결	2	폐지	2	정부	2	성과	2	변화
1	현장	2	호주제	2	정책과제	2	예방	2	한부모

## 2. 언어네트워크분석을 통한 『노무현 정부』 시기 여성부 장관의 정책 패턴

### 1) 지은희 장관 취임사 분석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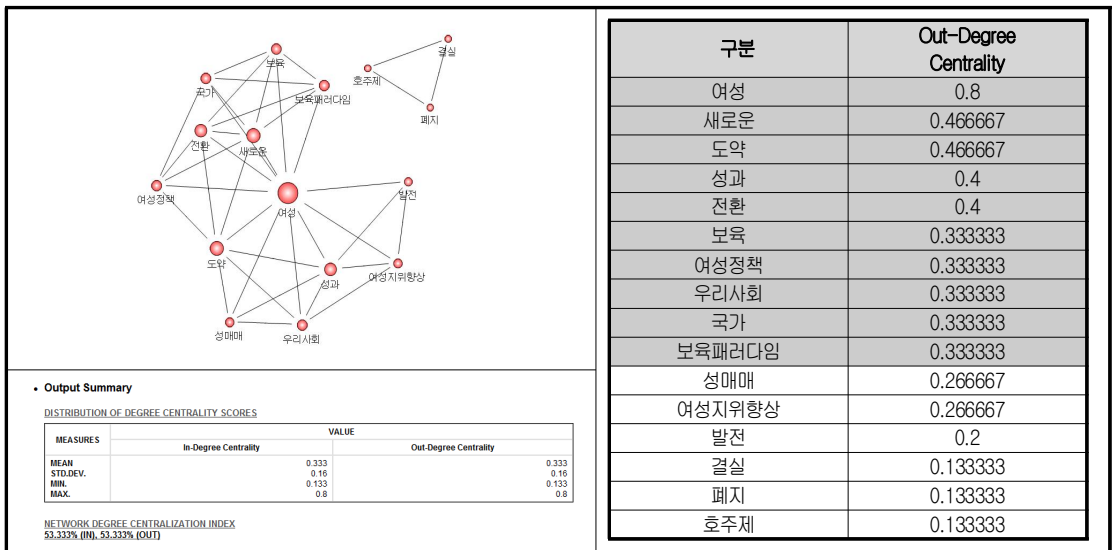
지은희 장관 취임사의 정책 경향성 내지 정책의 패턴을 살펴보기 위하여 언어네트워크 분석을 실시한 결과, “여성”키워드의 중심성 값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문제”, “비정규직”, “국제”, “인권”, “소외계층” 등의 키워드 중심성 값이 높았다. 지은희 장관은 취임사를 볼 때 여성의 비정규직 문제와 인권 문제, 여성의 소외 문제와 관련된 정책에 중점을 두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그림 2> 지은희 장관 취임사 분석결과

2) 장하진 장관 취임사 분석결과

장하진 장관 취임사의 정책 경향성 내지 정책의 패턴을 살펴보기 위하여 언어네트워크 분석을 실시한 결과, “여성”키워드의 중심성 값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새로운”, “보육”, “우리사회”, “국가”, “보육패러다임”, “여성지위향상” 등의 키워드가 중심성 값이 높았다. 장하진 장관의 경우에는 여성의 문제 중에서 특히 보육과 관련된 정책에 중점을 두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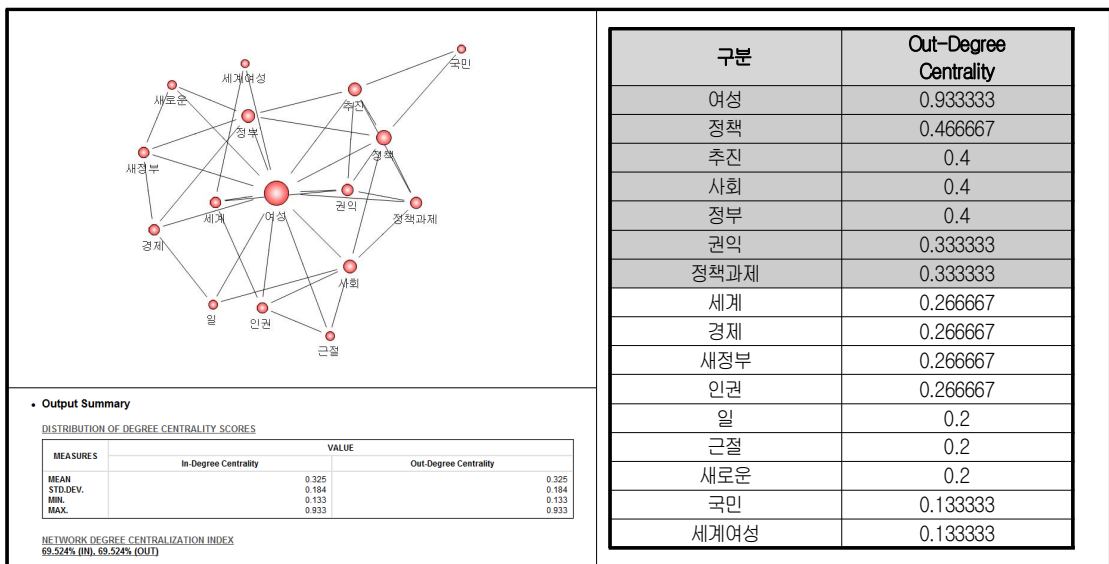


<그림 3> 장하진 장관 취임사 분석결과

### 3. 언어네트워크분석을 통한 『이명박 정부』 시기 여성부 장관의 정책 패턴

#### 1) 변도윤 장관 취임사 분석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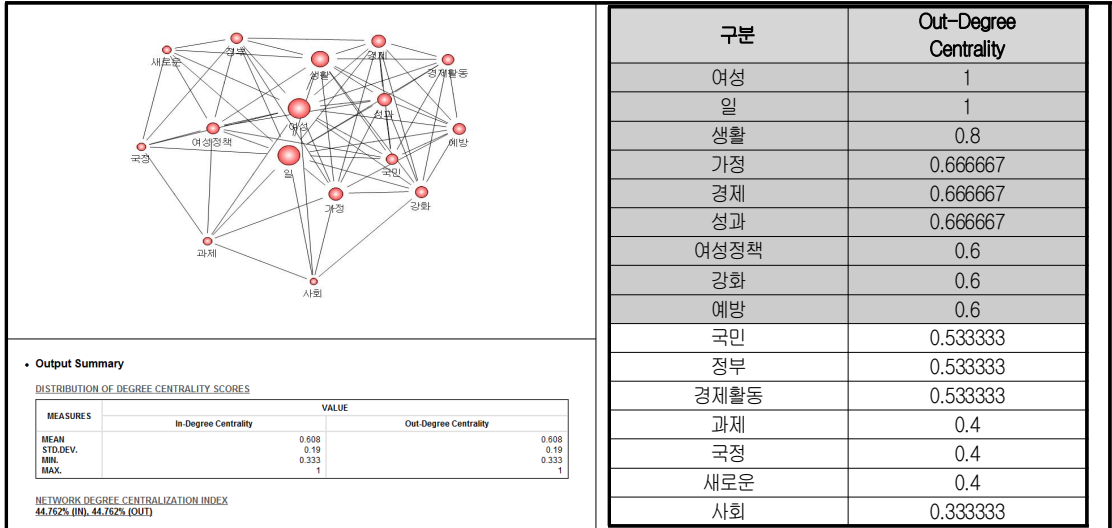
변도윤 장관 취임사의 정책 경향성 내지 정책의 패턴을 살펴보기 위하여 언어네트워크 분석을 실시한 결과, “여성”키워드가 중심성 값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정책”, “추진”, “정부”, “정책과제”, “새정부”, “일”등의 키워드가 높았다. 변도윤 장관은 새정부 들어서 첫장관으로써 여성정책과 관련된 정부의 역할을 중시여기고 있었고, 여성의 일자리 창출에 보다 중점을 두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그림 4> 변도윤 장관 취임사 분석결과

#### 2) 백희영 장관 취임사 분석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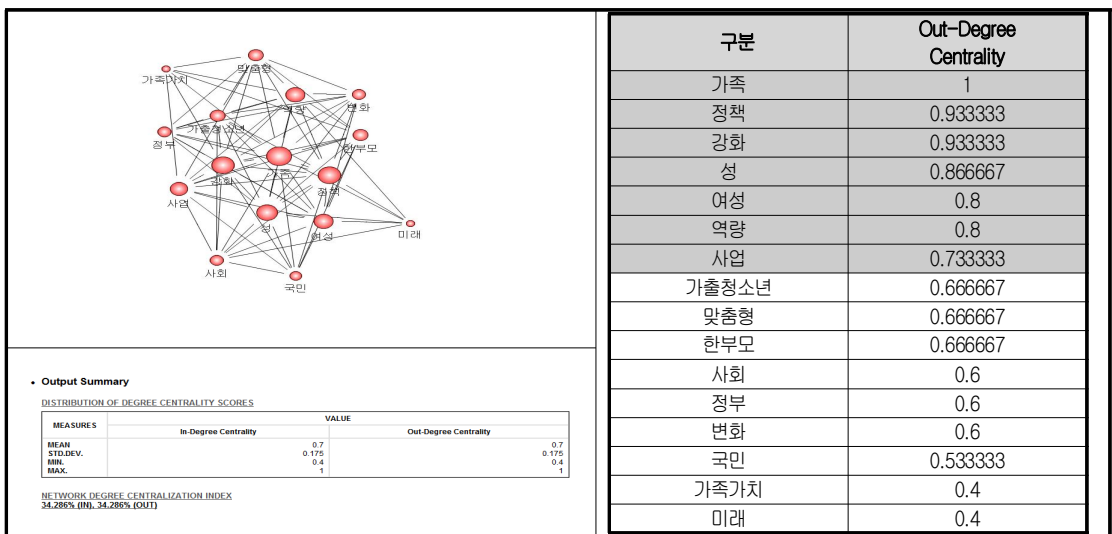
백희영 장관 취임사의 정책 경향성 내지 정책의 패턴을 살펴보기 위하여 언어네트워크 분석을 실시한 결과, “여성”키워드 중심성 값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일”, “생활”, “가정”, “경제”, “성과” 등의 키워드가 중심성 값이 높았다. 백희영 장관은 여성의 경제적 지위와 일 그리고 가정에서의 역할 등과 관련된 정책에 중점을 두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5> 백희영 장관 취임사 분석결과

### 3) 김금래 장관 취임사 분석결과

김금래 장관 취임사의 정책 경향성 내지 정책의 패턴을 살펴보기 위하여 언어네트워크 분석을 실시한 결과, “가족”키워드의 중심성 값이 가장 높았다. 다른 장관들은 “여성”키워드의 중심성 값이 가장 높았다는 것과 비교하여 차이가 나는 점이다. 이는 김금래 장관의 경우에는 여성정책의 좀 더 포괄적으로 가족의 입장에서 접근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다음으로, “정책”, “성”, “여성”, “역량” 등의 키워드의 중심성 값이 높았다. 김금래 장관은 여성의 역량 강화에 중점을 두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림 6> 김금래 장관 취임사 분석결과

#### 4. 시사점 및 제언

이 연구는 젠더 위기 극복측면에서 우리나라 여성부장관의 여성정책의 변화 추이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특히, 노무현 정부시기와 이명박 정부시기의 여성부 장관의 여성정책 변화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결과적으로, 노무현 정부 시기의 지은희 장관은 취임사를 볼 때 여성의 비정규직 문제와 인권 문제, 여성의 소외 문제와 관련된 정책에 중점을 두고 있었고, 장하진 장관의 경우에는 여성의 문제 중에서 특히 보육과 관련된 정책에 중점을 두고 있었다. 한편, 이명박 정부 시기의 변도윤 장관은 새정부 들어서 첫장관으로써 여성정책과 관련된 정부의 역할을 중시여기고 있었고, 여성의 일자리 창출에 보다 중점을 두고 있었고, 백희영 장관은 여성의 경제적 지위와 일 그리고 가정에서의 역할 등과 관련된 정책에 중점을 두었으며, 김금래 장관은 가족의 입장에서 여성정책에 접근하였고, 여성의 역량 강화에 중점을 두고 있었다. 이를 통해 볼 때, 노무현 정부 시기와 이명박 정부 시기 장관들의 정권에 따른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으나, 다만, 노무현 정부 시기의 장관들은 여성의 비정규직 문제, 여성의 보육 등의 문제에 관심을 보인 반면, 이명박 정부 시기의 장관들은 여성의 일자리에 보다 중점을 두고 있다는 점이 약간의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다.

그 동안 우리나라는 1990년대 이래로 여성정책이 급성장하고 각종 여성정책 입법이 실현되고, 여성 관련 예산, 조직이 급성장했으나 일상적 여성들의 삶을 보면 그간의 괄목할 만한 제도상의 변화·발전에도 불구하고 현실적 여성의 삶에 있어 이에 상응할 만큼의 변화가 눈에 띄지 않는다는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향후 여성부장관은 앞서 여성의 비정규직 문제, 양육문제, 일자리 문제 등의 제도적 기틀 마련을 위해 노력했다면 향후 여성이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주도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사회 중심화 단계로의 진입을 위한 다각적 노력에 더욱 노력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경향신문. 2014. 세계경제포럼 “한국 남녀평등수준 세계 142개국 중 117위”. 2014. 10. 28일자.
- 김용학. 2004. 사회 연결망 이론. 서울: 박영사.
- 김현숙. 2009. 지방정부 여성정책에 관한 연구: 창원시를 중심으로. 창원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백영주, 김수자. 2005. 여성사 관련 자료의 보존현황과 관리방안: 해방이후~1980년대 여성정책 및 여성단체 자료를 중심으로. 한국기록물관리학회지. 5(1): 5-21.
- 김영옥, 마경희. 2004. 주류화와 성평등의 논리: 한국 여성정책의 뉴패러다임 정립을 위한 편역서. 여성부.

- 김선욱. 2000.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과 한국여성입법정책. 법학논집. 4(4): 139-162.
- 박한우, Leydesdorff, L. 2004. 한국어 내용분석을 위한 KrKwic 프로그램의 이해와 적용: Daum.net에 서 제공된 지역혁신에 관한 뉴스를 대상으로.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6(5): 1377-1388.
- 박한우. 2006. 한국어 메시지의 내용분석을 위한 KrKwic 소프트웨어의 소개.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특 강자료집.
- 배연석 역. 2001. 미디어 내용분석 방법론. 커뮤니케이션북스.
- 사이람. 2010. 넷마이너에 의한 사회네트워크 분석. 서울: 사이람.
- 신준섭, 김지수. 2011. 원자력발전소 주변 지역주민의 갈등 프레임 분석: 후쿠시마 원전사고의 영향을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45(3): 173-203.
-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http://www.mogef.go>.
- 여성부. 1998. 제1차 여성정책기본계획('98~2002). 여성부.
- 여성부. 2003. 제2차 여성정책기본계획('2003~2007). 여성부.
- 여성부. 2008. 제3차 여성정책기본계획('2008~2012). 여성부.
- 여성부. 2013. 제4차 여성정책기본계획('2013~2017). 여성부.
- Lim, Elvin T. 2002. Five Trends in Presidential Rhetoric: An Analysis of Rhetoric from George Washington to Bill Clinton. *Presidential Studies Quarterly*. 32(2): 328-366.
- Pinkley, R. L. 1990. Dimensions of Conflict Frame: Disputant Interpretations of Conflict.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75: 117-126.
- Rice, R. E. and J. A. Danowski. 1993. Is It Really just Like a Fancy Answering Machine? Comparing Comments and Semantic Networks about Voice Mail. *Journal of Business Communication*. 30: 369-397.
- World Economic Forum. 2014.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 2013-2014*. World Economic Forum.

---

**안혜원:** 충북대학교에서 행정학 박사학위(논문제목: 한국적 창조도시의 성공전략에 관한 연구, 2012)를 취득하고, 현재 충청대학 경찰행정학부 겸임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관심분야는 지방자치, 문화정책, 지역개발 및 재난관리이다. 주요 논문으로는 “국가와 지방간 소방사무 재배분에 관한 논의(2013)”, “한국 위기관리분야 사례연구방법에 관한 내용분석(2012)”, “지역축제 활성화 요인에 관한 실증연구(2010)”, “충남지역축제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쟁력 강화(2009)” 등이 있다(heywon8151@hanmail.net).